

호메로스의 목소리를 되살리다

김준서*

[서평] 이준석 옮김(2023),
『일리아스』, 아카넷, 844쪽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맥락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예술의 섬세한 의미를 다른 사회문화적 유산의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 자신의 언어로 온전히 옮겨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까닭이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 외에도 번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번역자가 넘어야 할 추가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이준석이 자신의 번역서 말미에 언급하는 것처럼, 호메로스의 언어는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사람들도 실제의 언어생활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신기한 복합체”이다(p. 830, 이하 면수만 기재) 바꿔 말하면 호메로스의 언어는 일상 속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와 차별화되는, ‘장-단-단’의 리듬이 여섯 번 반복되며 한 행을 이루는 닥틸로스 헥사메터(dactylic hexametre)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예술어(Kunstsprache)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호메로스는 당대 그리스 문화권의 다양한 방언들(dialects)을 뒤섞을 뿐만 아니라, 암흑시대(Dark Age)를 거치면서 당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는 옛 뮈케나이(Mycenae) 문명의 언어에서부터 당대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자신의 시를 엮어 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호메로스 서사시는 절박함과 장중함이 교차하는 특유

*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강사

의 리듬을, 그리고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언들이 녹아든 의고체 (archaism)를 자신의 두드러진 언어적 특징으로 가지게 된다.

호메로스 서사시에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부여하는 이 언어적 특징들은 역설적으로 호메로스의 시어를 한글로 옮기는 데 난관으로 작용한다. 먼저 닥틸로스 헥사메터는 음절의 길고 짧음에 토대를 둔 운율이기에 글자 수를 운율의 기본 요소로 활용하는 한글-한자 문화권의 언어로 이를 옮기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닥틸로스 헥사메터의 엄격한 규칙성과 그리스어의 자유로운 어순 사이 긴장과 조화가 낳는 특유의 리듬을, 그리스어와 언어적 친소 관계가 없고 엄격한 어순을 가진 한글을 통해 전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호메로스 서사시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은 선택과 집중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번역자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일련의 선택들이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번역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천병희의 번역이 높은 평가를 받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도 그의 호메로스 번역이 원칙에 의거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있다. 천병희는 호메로스 서사시 특유의 운율과 리듬을 포기하고, 한글의 의고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현재의 한글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호메로스의 시어가 가지는 생경함—인공/예술어라는 태생적 특수성에 기인하는—을 과감하게 윤색한다. 천병희의 선택은 ‘가독성’이었고, 이를 위해 희생한 대가는 호메로스의 언어에 내재한 ‘낯설음’이다. 이준석은 자신의 번역이 바로 이러한 통찰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선생님[천병희]의 번역은 잘 읽힌다. 그리고 역자가 굳이 또 하나의 『일리아스』 번역본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830)

천병희의 선택이 가독성이었다면, 이준석의 선택은 호메로스의 언어가 가지는 고유함을 그 생경함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원칙을 밝힌다.

이 인공어를 통해 호메로스가 그려낸 세계는, 그러나 더없이 생생하다. 역자는 그저 이 세계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만 싶었다. 그래서 어떤 시행도 한국어 화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애써 바꾸지 않고 그저 호메로스의 표현대로 옮겨보려고 하였다.

(중략)

역자가 호메로스에게서 받은 것은 잘 지은 밥인데, 독자에게 이유식을 건네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물론 그 밥에는 독자에게 낯선 향과 맛이 있다. 식감이 영 어색하고 익숙지 않더라도 부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랄 따름이다.(831)

번역의 우선순위에 있어 두 역자의 차이점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가장 유명한 정형구(formula)에 대한 번역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ἔπεα πτερόεντα”는 작중인물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자주 등장하는 정형구로, 천병희는 이를 “물 흐르듯 거침없이”라는 한글 표현으로 의역한다. 반면 이준석은 그리스어의 뜻을 온전하게 살려 “날개 돋친 말”로 옮긴다.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가 “날개 돋친 말을 건네었다”보다 한글 독자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독성’은 호메로스 시어의 고유함, 즉 말을 날아가는 새 또는 깃털이 달린 화살에 비유하는 ‘낮설음’을 희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바다에 대한 환유(metonymy)로 쓰이는 “ἄλας”(소금)를 각각 “바다”(천병희)와 “소금 물결”(이준석)이라 달리 옮긴 것도 이준석이 자신의 번역을 천병희의 번역과 어떤 지점에서 차별화하려는지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이준석 번역의 이와 같은 특징은 『일리아스』의 초반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폴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자신의 전리품인 크뤼세이스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아가멤논은, 그 대신 다른 동료 전사들의 전리품을 빼앗겠노라 위협한다. 아가멤논의 무례하고 고압적인 폭언에 아킬레우스가 반발하자,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인 브리세이

스를 그로부터 빼앗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존중이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일리아스』의 “수치문화”(shame culture) 세계관에서, 존중의 물질적 증거인 전리품을 빼앗긴다 함은 공동체 속 자신의 위상과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아가멤논의 협박을 향한 아킬레우스의 반박은 작품 내 어떤 연설보다 격렬하고 노골적이다.

아킬레우스는 세 번에 걸쳐 아가멤논에게 욕설을 내뱉는데, “ἀναιδείην ἐπιειμένε”과 “κερδαλέοφρον” 그리고 “κυνῶπα”가 그것이다. 천병희가 이들을 각각 “파렴치한 자”와 “교활한 자” 그리고 “파렴치한 철면피”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옮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준석은 그리스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 “뺨뺨함을 뒤집어쓴 놈”과 “이득에 혈안이 된 놈” 그리고 “개의 낫썩을 쓴 놈”이라고 번역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천병희의 완곡어법(euphemism)이 그저 가독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호메로스의 시어는 의고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결과 노골적이고 저속한 표현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등장하지 않는다. 짐작컨대 천병희의 완곡한 표현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려는 의도의 결과물일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의 원전에 충실한 번역이 호메로스 시어의 고상함을 빛바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 연설 이전에 아킬레우스는 두 번의 연설을 하는데, 그 두 번의 연설은 『일리아스』 속 대부분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의 번역에서도 그 품격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설을 욕설로 온전하게 옮긴 이준석의 번역은 아킬레우스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그리고 이후 수많은 전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의 분노가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지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이처럼 호메로스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새기기를 선택한 이준석의 번역은 천병희의 매끄러운 번역에 비할 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준석의 고집스러움은 때때로 작품의 결정적인 대목에서 자신의 목적-더 없이 생생한 호메로스의 세계를 왜곡 없이 전달한다는-을 달성함으로써 빛을 발한다. 19권 초반 아킬레우스가 어머니 테티스 여신으로부터

헤파이스토스가 제작한 무구(武具)를 건네받는 장면에 대한 번역이 그 좋은 예이다.

잘 알려졌듯이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걸치고 전투에 뛰어들어 많은 공훈을 세우지만, 결국 헥토르에게 살해된 후 무구를 빼앗긴다. 복수를 위해 전장에 다시 뛰어들기로 결심한 아들을 위해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무구 제작을 부탁하고, 그것이 완성되자 손수 아들에게 건네주려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기술의 신이 제작한 경이로운 무구를 눈앞에 두고 아킬레우스와 나머지 뮈르미돈인들이 보여 주는 상반된 반응은, 22권 헥토르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일리아스』의 하이라이트인 아킬레우스의 학살극에 대한 전조이자 헥토르를 향한 분노의 격렬함에 대한 짧지만 강렬한 형상화이다. 이 장면을 묘사한 『일리아스』의 원문과 이에 대한 천병희와 이준석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ὥς ἄρα φωνήσασα θεὰ κατὰ τεύχε' ἔθηκε
 πρόσθεν Ἀχιλλῆος: τὰ δ' ἀνέβραχε δαίδαλα πάντα.
 Μυρμιδόνας δ' ἄρα πάντας ἔλε τρόμος, οὐδέ τις ἔτλη
 ἄτην εἰσιδέειν, ἀλλ' ἔτρεσαν. αὐτὰρ Ἀχιλλεὺς
 ὥς εἶδ', ὥς μιν μᾶλλον ἔδυ χόλος, ἐν δέ οἱ ὄσσε
 δεινὸν ὑπὸ βλεφάρων ὥς εἰ σέλας ἐξεφάανθεν: (II.19.12~17)

(천병희)

이렇게 말하고 여신이 무구들을 아킬레우스 앞에 내려놓으니
 정교하게 만든 무구들이 모두 하나같이 요란하게 울렸다.
 뮈르미도네스족은 모두 겁에 질려 아무도 감히 그것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그것들을 보자 더욱 더 분노했고
 그의 두 눈은 눈썹 밑에서 불꽃처럼 무섭게 번쩍었다.

(이준석)

여신은 이렇게 말하고서 아킬레우스 앞에
무장을 내려놓으니, 이 경이로운 무장이 일제히 굉음을 울리자
모든 뿔르미돈인들은 그만 공포에 사로잡혀 어느 하나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주춤주춤 물러날 뿐이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그것을 보자마자 더더욱 맹렬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고, 눈꺼풀 아래
두 눈은 불길이 일 듯 무서운 빛을 내뿜었다.

일견 천병희와 이준석의 번역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어 원문을 한글로 옮기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준석의 번역이 이 장면에서 아킬레우스의 무구가 뿜어내는 신성을 그리고 호메로스가 묘사하는 세계를 천병희의 번역보다 한층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헤파이스토스가 아킬레우스를 위해 만들어 준 무구를 보고 뿔르미돈 병사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아킬레우스는 분노와 기쁨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에 대한 천병희의 번역은 모두 감정을 느끼는 인간을 주어로 하는 반면, 이준석의 번역은 두려움과 분노가 인간을 대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옮기고 있다. 실제로 원문을 직역하면 “전율이 모든 뿔르미돈인들을 제압하였다. … 반면 더욱 격렬한 분노가 아킬레우스를 사로잡았다”로, 모두 감정이 외부에서 대상인 인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의 차이는 단순하게 원문의 표현을 충실하게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호메로스 서사시에서의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내적이고 추상적인 정서가 아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격렬한 감정은 마치 강풍이나 폭우 또는 거센 불길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듯이 외부로부터 가해져 인간을 변화시키는 물리적인 실체처럼 묘사된다. 그리고 위에 인용된 장면에서 헤파이스토스의 무구는 생명 없는 물체가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실체화된, 신성

한 분노라는 초인적 폭력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천병희의 번역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는 그 자체로는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엄밀하지 않은 번역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준석의 번역 “주춤주춤 물러날 뿐이었다”는 원문에 충실함으로써 호메로스의 세계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실제로 호메로스의 표현은 헤파이스토스의 무구가 발산하는 신성한 분노—초인적 폭력—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필멸자들의 가련한 모습을 그려 낸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킬레우스의 두 눈이 “불꽃처럼 무섭게 번쩍였다”는 천병희의 번역은 “불길이 일 듯 무서운 빛을 내뿜었다”는 이준석의 번역에 미치지 못하는데, 분노에 사로잡힌 아킬레우스는 인간이라기보다는 헤파이스토스의 무구와 마찬가지로 초인적 폭력 그 자체로, 주위의 인간들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인 까닭이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의 불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일리아스』 곳곳에서 신들이 힘을 행사할 때와 마찬가지로—신적인 힘이 아킬레우스로부터 분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이준석의 번역은 최대한 왜곡 없이 호메로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호메로스가 그려 내는 세계를 한층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준석의 번역에 아쉽거나 의문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것부터 언급하자면, 이준석은 *alpha privativum*, 즉 부정의 접두사 알파를 일관되게 “모르는”으로 번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들을 의미하는 명사/형용사인 “*ἄθῆνατος*”를 이준석은 예외 없이 “죽음을 모르는(신)”이라고 옮긴다. 물론 한글로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리스어에서 ‘박탈’과 ‘결여’를 뜻하는 접두사를 굳이 한글식 표현으로 번역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스어의 뜻을 살려 “죽지 않는(신)”이나 “불멸하는(신)”으로 옮긴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호메로스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원칙이 왜

이곳에서 지켜지지 않는지 의문이다.

또 다른 의문은 *ἀνῆρ*에 대한 번역이다. 호메로스는 이 단어를 영어의 ‘man’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사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둘 중 어느 뜻으로 새길지는 해당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견의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남자’가 아닌 ‘사람’을 고수한다. 일례로 헥토르의 별칭(epitheton)인 “*ἀνδροφόνος*”를 이준석은 계속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이 『일리아스』가 묘사하는 헥토르라는 인물상—국가와 가족의 안위를 자신의 명성과 영광보다 더 중요시하는—과는 잘 맞지 않는 번역으로 읽힌다. 적수인 아카이아 전사들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조차도 헥토르를 살육에 미친 살인마가 아닌, 아군을 무수히 쓰러뜨리는 위협적인 적수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헥토르의 별칭은 “남자를 죽이는”, 다소 윤색하면 “전사들을 살해하는” 정도로 옮기는 것이 호메로스의 원래 의도에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다음으로는 『일리아스』의 모든 번역자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난관, 작품의 첫 단어 *μῆνις*의 번역에 관한 것이다. 이준석은 이 단어를 “노여움”으로 옮겼는데, 개인적으로 이 번역은 다른 선택지들에 뒤따르는 단점을 피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천병희의 “분노”는 *μῆνις*라는 어휘가 지닌 특별한 함의를 전달하지 못하고, “존엄한 존재의 분노”를 뜻하는 “진노”(震怒)의 경우 작품의 시작부터 독자들에게 생경함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여움은 따로 뜻을 찾아볼 필요가 없는 익숙한 단어인 동시에, (“진노”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서열상 더 높은 존재가 자신보다 낮은 상대에게 드러내는 분노라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탁월함은 아쉽게도 작품 내내 유지되지 않는다.

*μῆνις*는 의심의 여지없이 유표적(marked) 어휘로, 인간들 중 오직 아킬레우스만이 신들과 공유하는 특별한, ‘신적인’ 분노다. 서구 시문학의 시작

을 알리는 이 단어는 『일리아스』라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동시에 『일리아스』와 그 주인공 아킬레우스의 특수성을 함축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때문에 μῆνις의 번역어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노를 표현하는 다른 어휘들과 차별화되는 번역어를 선택하고 작품 내내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은 “노여움”이라는 번역을 χόλος를 비롯한 특별한 함의가 없는 일반적인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에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μῆνις를 몇 차례 “진노”라고 달리 옮기기까지 한다. 이러한 핵심적인 어휘의 번역에 있어서의 흔들림은 이준석이 자신의 번역 전반에 걸쳐 ‘호메로스를 호메로스답게’라는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이미 정본(canon)에 가까운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병희의 번역보다 호메로스의 언어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최초의 원전번역이라는 점에서 천병희의 번역은 일반 독자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호메로스 서사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메로스 언어의 생생함, 호메로스적 ‘낯설음’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새로운 번역이 나오기까지 필요했던 사십 년의 세월은, 호메로스 서사시를 번역하는 것의 어려움과 천병희 번역의 훌륭함을 동시에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백 명의 번역자가 있으면 백 개의 서로 다른 작품이 존재한다는 말이 과장일지는 몰라도 거짓은 아닌 번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호메로스의 생생한 세계를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이준석의 목표는 겸손한 어조와는 달리 대단히 야심찬,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자신의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감으로써 때때로 자신이 감탄했던 볼프강 샤테발트(Wolfgang Schadewaldt)의 번역에 근접한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호메로스의 희랍어를 독일어로 옮겨 오다 보니, 말뜻마저 고스란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대목도 여럿 있었다”(380)는 이

준석의 평가는 『일리아스』 19권에서 테티스 여신이 아킬레우스에게 새로운 무구를 전해 주는 장면에 대한 자신의 번역에도 유효하다.

참고문헌

호메로스, 이준석 역(2023), 『일리아스』, 아카넷.

호메로스, 천병희 역(2007), 『일리아스』, 도서출판 숲.

West, M. L. (2000), *Homeri Ilias vol. 2*. München/Leipzig: K. G. Saur Verlag.

West, M. L. (1998), *Homeri Ilias vol. 1*. Berlin/New York: K. G. Saur Verlag.